

남녀의 평등의식,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홍기원 · 전방지 · 차경호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남녀 대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남녀평등검사, 집단자존심, 개인적 자존심, 소속 성집단에의 정서적 애착,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등 심리적 안녕감 척도, 그리고 일상생활 중 고정관념적으로 유리한 사례와 불리한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평등검사의 네 하위 분야인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 별로 차이를 보였고, 남성보다 여성이, 상급생보다는 하급생이, 그리고 자연계 전공자들보다는 인문계 전공자들이 각각 더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남성의 유리한 사례와 여성의 불리한 사례에 대한 남녀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정서적 애착이나 자기 성에의 만족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집단 및 개인 자존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집단자존심이 높을수록 더 평등한 의식을 보였는데 이는 안정된 성차지각이 오히려 성평등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이 불안정한 고정관념적인 지각을 하고 낮은 평등의식을 갖는 기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평등주의, 한국형 성평등척도,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심리적 안녕감

정보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엔에서도 4차에 걸쳐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를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부 신설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와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곳곳에 여성차별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차별 의식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많은 자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심한 불평등을 보고하고 있

다. 최근 유엔이 발간한 “2000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에서 30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왔다(시사저널, 2000. 12. 7). 김양희와 정경아(2000)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남녀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가 조사한 남녀평등실천지수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은 더 낮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평등의식이 약했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이 전업주부나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한겨레신문, 1999. 8. 11). 우리사회의 남녀불평등 지각은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대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차경호(1999)는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다른 연구에서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은, 정적정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일상생활 중에 여자들이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더 많고 남녀차별이 도처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승영, 박수자, 전방지, 조순경, 진수희, 황석만, 1999). 이들은 곧 실무에 나아가 산업인력으로서 일해야 하므로 이들이 지니는 남녀 성차에 따른 부조리나 위화감, 해로운 심리적 건강이 국제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한국형 평등의식검사가 개발되었으나 대학생과 고교생을 비교한 경험적 연구나 이에 따른 남녀간의 고정관념적인 성차의식에서 세대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평등의식 검사가 시사하듯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향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의 남녀로 생활하기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러한 평등의식과 고정관념적인 성차 집단적 자존심과 개인적 자존심 등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남녀가 차이는 있으나 평등하다는(different but equal) 입장 하에 남녀의 평등은 독립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녀평등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남녀별로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생각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남성과 여성이 갖는 고정관념적인 성차의식을 밝혀내어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보다 상대방을 잘 이해 할 수 있게되고, 상대방이 겪는 일상생활 중 상대방이 겪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인식하면 서로를 보다 더 배려하는 조화로운 양성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들은 남성과 여성집단별로 상대 성 집단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고정관념적 지각이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즉, 남녀학생들이 일상생활 중에 고정관념적으로 느끼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들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아울러 남녀평등검사를 통하여 가정,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 분야별로 남녀 성평등에 대한 지각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남녀 학생들에게 불평등의 내용을 상기하게 하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감이나 만족감 등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들 중 남녀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 남녀의 고정관념, 남녀의 평등의식 연구, 그리고 성차의 지각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성 역할에 대한 기대, 대인 및 집단 내 관계들에서 남녀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남성에게 속한다고 느껴지는 특성들과 여성들에게 속한다고 느껴지는 특성들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남성과 여성에게 속하는 특성들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각 특성들에 대하여도 성차별적인 호감을 나타내었다. 대체로 남성은 유능, 합리성, 주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은 이들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McKee & Sheriffs, 1957).

남녀의 특성뿐만 아니라 남녀의 행동 상 차이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심리학자들은 여러 문화권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성행위를 더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예, Oliver & Hyde, 1993). 남성들이 성적인 행동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빈번히 성행위를 가지며, 여성의 친절을 성적 관심으로 오해하며 이로 인한 성희롱으로부터 데이트 강간에 이르는 불행한 결과들이 발생한다(Kenrick & Trost, 1987). 또 남녀에게 상이한 가치기준이 적용된다는 연구들도 있다. 이상적인 신체의 아름다움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특히 여성은 각 시대의 이상적인 몸매에 맞추느라 노력해 왔다. 오늘날의 섭식장애는 개별적인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체중-강박적 문화로 병들게 하고 있다. “비만은 나쁜 것이다”는 압박이 모든 여성들을 항상 다 이어트를 하도록 만들어 늘 준 기아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여성의 날씬함을 강조하는 문화적 기준 때문에 심각한 섭식장애가 늘고 있다(Wooly & Wooly, 1983). 또한 그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다수의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비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ash & Henry, 1998).

위에서 본 남녀의 특성, 행동, 가치를 다룬 연구 예들에서 본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본질에 대하여 수세기 동안 만들어진 수많은 믿음들에는 근본적인 일치점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대한 이런 가정들을 믿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정들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은 고정관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이 지속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는 고정관념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남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그 근거는 '진리의 핵심(kernel of truth)'이라고 불려져왔다. 고정관념은 원래의 내용보다는 과장되기는 했지만 집단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차이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정관념적인 신념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 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신념들이 아주 부정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집단에서 전형적인 특성을 그 집단의 고정관념적인 특성이라고 볼 때 "전형적(typical)"이란 무슨 뜻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McCauley와 Stitt(1978)는 '독일인의 몇 %가 능률적인가', '독일인의 몇 %가 국수주의적인가'로 질문했을 때 독일인의 63.5%가 능률적이고, 독일인의 56.3%가 국수주의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어떠한 특성도 100%에 근접한 특성은 없었다. 따라서 전형적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 모든 집단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50% 이상의 응답을 얻은 특성을 전형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인이 과학적인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찬택 비율은 50%이하였고, '독일인들이 쾌락을 추구하는가'라는 데 대하여는 72.8%로 나왔는데, 50% 이상의 응답을 받은 특성을 그 민족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본다면 독일인에 대하여는 과학적이라기 보다는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더 어울리게 된다. 그러나, 전 세계인의 과학적인 소질은 50%에 훨씬 못 미치고, 전 세계인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도는 82.2%였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은 그 집단에게 귀속된 특성의 절대비율이 아닌 다른 나라, 또는 전 세계인의 평균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특성의 비율을 묻기보다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형적인 특성들을 응답자들에게 몇가지씩 열거하게 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여러 특성들의 누가비율이 50% 이내에 들어온 특성들을 고정관념적인 특성들로서 정의한다(예: 차재호, 1992). 그리고 특정한 표적집단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특성으로부터 차례로 열거하여 누가비율이 50%가 될 때까지 몇 개의 특성들이 소요되는지로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합의 정도, 또는 침예도를 볼 수 있다. 즉, 특정한 인종집단을 기술하는데 누가비율이 50%가 될 때까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특성들만이 요구된다면 그 인종집단에 대하여는 비교적 잘 발달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own, 1985). 이 논문에서도 남성과 여성 집단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고정관념적 장단점을 들게 하여 각 응답지의 비율을 누가하여서 50%에 이르면 소요되는 특성의 수로 고정관념의 정도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성 고정관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용이 덜 엄격해지며 융통성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고학년에 이룰수록 인지능력이 세련화 되면서 고정관념의 침예도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계속 감소되나 남성들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유가효, 1994). 또한 선진국일수록, 도시 지역일수록 남녀평등적 견해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는 성 고정관념이 사회문화적 효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Williams & Best, 1990). 우리나라와 같이 남녀차별이 다소 심한 문화권에서는 남성의 유리한 사례와 여성의 불리한 사례에 대하여 양성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의 성차의식과 함께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도 세대간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남녀가 서로 상대방의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 서로 높은 이해를 통한 평등적인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놓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평등보다는 차별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 더욱이 평등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성차의식에 덜 민감하므로 평등의식의 수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고정관념의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가설).

심리적 안녕감

집단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각 집단들의 세력과 지위가 다르다(Eagly, 1997; Taylor & Moghaddam, 1994).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에서도 남녀차별의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나은 소득을 얻고(Peterson & Runyan, 1993), 업무 능력이 동등하더라도 더 나은 보수를 받는다(Stroh, Brett, & Reilly, 1992) 이러한 구조적 괴리는 핵심집단의 물질적 부가 더 많아지게 할뿐 아니라, 핵심집단 성원들이 주변집단 성원들보다 선호되고 규범이나 기준으로 여겨지며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Miller, Taylor, & Buck, 1991).

핵심집단과 주변집단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의 우월한 지위를 합법화하거나 자기 집단의 불리한 지위에 대한 도전을 하려는 등의 다른 동기가 있으므로 긍정적 사회 정체를 유지하는 전략이 다를 수 있다(Bourhis, 1994; Tajfel & Turner, 1986). 또한 집단의 지위차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래서 집단의 성과가 합법적으로 나온 것인지 비합법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핵심 및 주변 집단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그 집단원으로서의 자신들을 어떻게 느끼는 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Turner, Hogg, Reicher, & Wetherell, 1987)

긍정적 사회정체를 얻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기가 속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골적인 내집단편애(in-group favoritism) 효과는 많은 연구들에서 흔히 관찰되어 왔으나(Brewer, 1979), 때로는 그러한 것이 내집단의 이미지에 해롭다면 그러한 방법의 사용을 억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핵심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집단 소속에 따른 특혜

를 생각하게 하면 집단적 죄의식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협적일 수 있다(Branscombe, Slugoski, & Kappen, 1977).

그렇다면 남성들에게 자신들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 중 불안하거나 부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남성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하여 더 경직되고 차별적인 지각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 놓여 있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오히려 고양된 집단적 자존심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여유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남녀의 고정관념적 차이에 대하여 안정적인 이해를 하고 여성에 대하여도 덜 고정관념적이며 평등한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집단적 자존감 가설).

남녀평등의식

Bem(1974)의 성 역할 검사가 제안된 이후에 보다 정교한 성 역할 검사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Spence와 Helmreich(1974)의 개인속성검사, 여성에 대한 태도검사, Beere, King, 및 King(1984)의 성역할 평등주의 검사, Swim, Aikin, Hall, 및 Hunter(1995)의 舊성차별주의와 현대성차별주의, Tougas, Brown, Beaton, 및 Joly(1995)의 新성차별주의 등의 성차별, 남녀평등주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재는 도구들이 개발된 바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진경(1990)에 의하여 한국 문화에 맞는 성 역할 특성을 재는 검사가 처음 개발되었다.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번역하여 사용 시 이론적으로, 방법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 역할이나 남녀에 대한 태도는 특정 사회에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기초하므로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원 검사에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문항들을 삭제하는 경우 원 검사에서 보장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없다. 이에 김양희 등(2000)은 성격특성이나 성역할만을 다루는데서 벗어나 남녀의 능력과 역할, 사회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정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태도를 구성하는 세 요소인 인지적 측면인 신념, 정의적 요소인 편견, 그리고 행동적 요소인 차별을 모두 포함한 검사를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한국형 남녀평등검사에서는 모두 8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들은 다시 가정, 직업, 사회 문화의 네 영역 별로 20문항이 나뉘지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18세부터 60세의 일반 성인 남녀 1600여명과 여성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장된 검사의 성별 기준도 마련하였다. 검사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여성운동가들이 일반 성인들보다 더 남녀평등 의식이 높았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으며, 낮은 연령층이 높은 연령층보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평등의식을 보였다(남녀평등의식의 차별성 가설).

이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남녀학생들 중 남학생은 핵심집단의 지위를 여학생은 주변집단의 지위를 누려왔다고 보고 이들이 일상생활 중에 가정,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문화의 네 가지 영역들에서 평등의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어떤 고정관념적 성차의 지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평등의식 검사가 응답자들에게 주는 함의는 각 기술문들이 객관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이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암묵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상생활 중의 경험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례들은 주관적이며 현실적인 사례들인 고정관념적 성차의식을 보여 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에 불리한 환경이 특히 두드러지므로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현저할 것이고 자존심도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남녀가 보는 일상생활 중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게 했을 때 남녀 성차에 관한 고정관념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상이한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가설, 집단죄의식 가설, 남녀평등의식의 차별성 가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1. 남녀평등의식에서 남녀별, 전공별, 연령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비교적 소수집단의 위치에 머물러 온 여성들의 불만족으로 인한 높은 평등감 인식, 그리고 인문계에 비하여 여성의 진출이 부진한 공학분야에서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높은 평등의식이 나타날 것이며, 점차 평등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상급생보다는 하급생에서의 평등의식이 현저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대학생들이므로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학교장면에서 평등의식이 다른 장면들에서보다 두드러질 것이다.

2. 집단자존심, 개인자존심, 자신의 성에 대한 애착,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등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에 따라서 평등의식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누려 온 만큼 집단자존심이 높을수록, 불법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누리므로 죄의식을 느낀 나머지 평등의식이 높게 나올 것이고, 이에 반하여 여성들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를 감수하는 만큼, 심리적 안녕감과 평등의식이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3. 일상생활 중 남성들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에 대한 남녀별 지각이 다르게 나올 것이다. 즉, 남성은 여성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에 대하여 상이한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를 위하여 호서대에서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355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이들은 남학생 218명, 여학생 137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262명, 21세 이상은 93명이었다. 또 전공별로 보면 자연계열이 201명이고 인문사회 계열은 153명이었다. 이들은 조사에 응할 시 보너스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하여 조사에 참가하였다.

절차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평등의식 검사, 집단자존감, 개인적 자존감, 자신이 속한 성 집단에의 애착심, 자기애의 만족 등 심리적 건강측정치에 응답하게 한 후 일상생활 중 고정관념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례들을 제시된 보기 속에서 5개씩을 고르게 한 후 인구학적 변인에 응답하게 하였다.

평등의식검사 :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남녀의식 조사”라는 제목 하에 성평등의식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

감에 대한 질문,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적 태도를 재는 측정치가 들어있는 소책자를 나누어주었다. 소책자 속에는 김양희와 정경아(2000)가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80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이 문항들은 가정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 그리고 사회문화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높은 평등지향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4가지가 사용되었다. 집단자존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Luhtanen과 Crocker(1992)가 개발하고 김혜숙(1994)이 번안한 집단적 자존심(collective self-esteem)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속한 성집단이나 다른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갖는 느낌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원래의 문항은 16개였으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번안한 14개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 상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의 Rosenberg(1965)의 10문항으로 된 개인적 자존심(personal self-esteem)을 재는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어서 “나는 여성(남성)인 것을 좋아한다” 등 자신이 속한 성 집단의 정서적인 애착(emotional attachment to one's gender group) 정도를 보는 네 문항에 역시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 척도에서는 자신이 속한 남녀 성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서 얻는 가치감, 호감, 자긍심, 소속감을 재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나는 남성(여성)의 역할에 만족한다” 등 6개 문항으로 된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감(satisfaction with one's gender value)을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달 동안에 공포, 죄의식, 기쁨, 만족감 등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를 어느 정도나 느꼈는지에 대하여 7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 척도에서도 높은 점수일수록 많은 정서를 느끼는 것이었다.

고정관념의 확인 : 이어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일상 생활 중에 자주 겪게 되는 사례들 중 남성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 그리고 여성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5가지씩 고르게 하였다. 이는 홍기원(2001)이 찾아낸 남성 혹은 여성이 일상생활 중 유리하

거나 불리했던 사례들의 보기들인 15내지 16개 문항들 중에서 5가지씩을 고르게 하였다.

결 과

평등의식

김양희 등(2000)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를 써서 얻은 결과는 표 1에서 보듯이 각 하위 영역별로 내적 일치도 계수는 .74에서 .87로 나와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 검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평등의식의 평균 점수는 7점 척도상 4.96이었고, 이를 각 영역별로 보면, 가정분야가 가장 높았고(5.09), 그 다음은 직업분야(4.95), 사회문화 분야(4.93), 교육분야(4.88)의 순으로 나왔다.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5.56)이 남성(4.59)보다 더 높은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는 모든 영역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특히 교육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사회문화 분야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평등의식 검사의 네 가지 하위 영역간의 상관을 보면 가정과 교육분야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가정과 사회문화 분야는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예언 1지시).

평등의식의 내용을 각 분야별, 그리고 항목별로 보인 것이 표 2이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 분야에서는 모든 문항에서의 남녀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이었고, ‘대를 잇기 위하여 아들이 필요하다’는 문항에서 가장 낮은 응답이 나왔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제일 높은 동의를 보였다. 남녀 응답자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문항은 ‘결혼한 여자가 친정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라는 것이었다.

교육분야에서는 ‘암기과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한다’에 대하여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다른 문항들에 있어서는 모두 여성의 평등의식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가장 높은 평등의식을 보인 문항은 ‘여자는 법학, 기계공학, 등 전통적인 남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이었고 가장 낮은 평등의식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학교의 체육수업과 스포츠활동은 남학생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로 나왔다. 남녀의 의식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문항은 ‘지

도력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였다.

직업분야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평등의식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문항은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였고, 가장 낮은 응답 문항은 '여자는 자녀와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였다. 남녀간에 가장 큰 시각 차이는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들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는 문항에서 볼 수 있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여자는 남자가 선택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문항과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항에서만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동의는 '여자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에서 가장 낮은 동의는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라는 문항이었다. 남녀간의 시각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이었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재는 하위 척도들인 집단자존심, 개

인 자존심, 정서애착, 그리고 자기 성예의 만족별 신뢰도는 표 3에서 보듯이 .85부터 .51로 나와 자신 성예의 만족은 다소 신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네 요인들 중에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서애착($t=2.34, df=351, p<.05$)과 자신의 성예의 만족($t=3.54, df=351, p<.01$)으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심리적 안정감을 보는 각 요인들 상호간에는 집단자존심과 개인자존심이 가장 밀접함을 보였고, 집단자존심과 자신의 성예 대한 만족은 가장 낮게 나왔으나 각 요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여 주었다. 평등의식의 네 영역과의 상관에서 집단자존심과 직업, 사회문화와는 정적상관을, 정서애착과 가정, 교육, 직업과는 부적상관을, 그리고 자신의 성예 대한 만족과는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남녀별로 따로 분석하면 남녀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남성 응답자들은 집단자존심과 직업, 사회문화는 물론, 교육에서도 정적 상관(각각 $r=.153, r=.155, r=.165, p<.5$)을 보였고, 정서애착과는 가정분야만 부적인 상관($r=-.146, p<.05$)을, 그리고 자신의 성예의 만족과는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가 부적으로 상관(각각 $r=-.227, r=-.224, r=-.239, r=-.196, p<.01$)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여성들은 자신

표 1. 평등의식검사의 분야별 신뢰도 및 남녀별 비교
(a) 평등의식검사의 분야별 신뢰도, 문항총점 상관, 남녀별 비교

평등검사척도 분야	α	문항 총점상관	평 균			t	유의도
			남	여	전체		
가정	.8452	.24-.58	4.69	5.73	5.09	15.37	.000**
교육	.8545	.24-.63	4.50	5.49	4.88	18.45	.000**
직업	.8650	.16-.63	4.58	5.53	4.95	15.11	.000**
사회문화	.7407	.16-.49	4.59	5.48	4.93	13.60	.000**
평등전체			4.59	5.56	4.96	17.65	.000**

(b) 하위 분야별 상관

	교육	직업	사회문화	전체
가정	.827**	.799**	.691**	.913**
교육		.795**	.703**	.918**
직업			.779**	.923**
사회문화				.871**

** $p < .01$

표 2. 남녀평등의식의 분야별, 문항별, 남녀별 응답 평균 및 차이비교

(a) 가정분야

문항 번호	내 용	남	여	평균	t	유의도
1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4.36	5.39	4.76	6.50	.000
5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3.53	5.26	4.20	8.79	.000
11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5.64	6.46	5.98	5.24	.000
14	폐백은 양가 부모님께 모두 드려야 한다.	5.68	6.24	5.92	4.20	.000
25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6.26	6.67	6.41	3.95	.000
28	자녀가 잘못됐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	5.07	5.83	5.36	5.11	.000
34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5.65	6.61	6.03	7.37	.000
35	집안 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4.36	5.15	4.67	4.30	.000
37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는 시댁과 남편에게 떳떳치 못하다.	5.57	6.13	5.79	3.70	.000
40	아내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행복하다.	4.72	5.52	5.04	5.15	.000
44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	5.46	6.20	5.74	5.75	.000
50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다.	4.36	5.82	4.92	8.88	.000
54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4.06	5.26	4.54	6.95	.000
57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이다.	4.00	5.34	4.53	8.54	.000
61	결혼한 아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	5.21	5.93	5.49	5.26	.000
64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5.33	6.19	5.66	6.04	.000
69	호주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3.84	4.93	4.28	6.92	.000
71	이혼 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37	5.64	4.88	7.68	.000
73	딸, 아들 구별 없이 집안 일을 시키겠다.	5.57	6.33	5.87	5.61	.000
77	결혼한 여자가 친정부모를 도시는 것은 시집식구에 미안한 일이다.	4.69	6.11	5.24	9.44	.000
소 계		4.69	5.73	5.09	15.37	.000

(b) 교육분야

문항 번호	내 용	남	여	평균	t	유의도
3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타고난 지적인 능력의 차이는 없다.	4.72	5.25	4.93	2.54	.000
6	여자는 남자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3.84	4.61	4.14	4.26	.000
9	여자는 법학, 기계공학 등 전통적인 남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5.50	6.35	5.83	6.01	.000
16	성교육은 남학생보다 순결이 요구되는 여학생에게 더 많이 시켜야 한다.	5.26	6.27	5.64	6.13	.000
19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5.17	6.21	5.57	6.95	.000
21	남녀 혼성 학급의 반장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5.28	6.44	5.74	8.17	.000
23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4.33	5.94	4.95	9.65	.000
27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학교의 체육수업과 스포츠활동은 남학생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3.46	4.47	3.86	6.14	.000
31	남자는 간호학, 가정학 등 전통적인 여성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5.20	5.91	5.49	4.78	.000
38	지도력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4.07	5.46	4.62	8.43	.000
42	교장과 같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다.	4.94	6.23	5.43	7.00	.000
45	교사양성과정에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28	6.06	5.58	6.12	.000
46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5.01	5.60	5.25	3.95	.000
52	학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안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4.22	5.15	4.60	5.76	.000
55	암기과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한다.	4.29	4.39	4.31	0.62	.540
58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4.83	5.51	5.09	4.87	.000
62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4.30	5.45	4.80	6.17	.000
72	교사는 여학생들이 과학이나 공학분야로 진학하도록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3.78	4.57	4.11	5.53	.000
76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5.29	6.26	5.70	6.70	.000
79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교육목표는 달라야 한다.	5.96	5.95	5.35	6.51	.000
소 계		4.69	5.72	4.88	15.45	.000

남녀의 평등의식,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c) 직업분야

문항 번호	내 용	남	여	평균	t	유의도
2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들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4.19	5.70	4.78	6.28	.000
4	자격이 같은 남녀 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5.35	6.63	5.84	8.65	.000
13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4.44	5.84	4.99	8.11	.000
15	채용면접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5.23	6.14	5.58	5.80	.000
18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5.20	6.27	5.61	7.66	.000
20	접수나 안내 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3.21	4.85	3.86	9.57	.000
22	여자는 자녀와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활동을 해야 한다.	3.41	4.53	3.83	6.19	.000
30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5.35	6.06	5.63	5.10	.000
32	기업체에서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5.36	6.28	5.71	6.14	.000
41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5.22	6.35	5.68	8.58	.000
47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4.44	5.32	4.79	5.20	.000
48	남자들이 유치원 교사, 영양사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해온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4.66	5.45	4.97	5.02	.000
53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5.94	6.47	6.15	4.28	.000
56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뭄계 던지는 성적인 농담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 반응이다.	4.87	5.46	4.47	9.83	.000
60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4.72	6.10	5.28	9.82	.000
63	여자의 수가 매우 적은 직업에 여자를 일정한 비율 뽑도록 하는 할당제에 찬성한다.	4.23	4.83	4.46	3.34	.000
65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26	6.08	5.57	6.08	.000
67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직원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	5.62	6.52	5.97	7.16	.000
75	여자들이 중장비 기사와 같은 남자들이 주로 해온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4.43	5.36	4.78	5.76	.000
80	남자는 업무기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4.16	5.23	4.58	6.42	.000
소 계		4.58	5.53	4.95	15.10	.000

(d) 사회 문화분야

문항 번호	내 용	남	여	평균	t	유의도
7	여자라고 숨어서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다.	4.33	5.44	4.77	5.61	.000
8	성(性)을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5.03	5.50	5.22	1.30	.000
10	여자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	5.17	5.77	5.39	3.89	.000
12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3.34	4.60	3.82	6.96	.000
17	여자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남자에 비해 부족하다.	4.60	5.80	5.06	6.70	.000
24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다.	3.67	4.85	4.13	6.62	.000
26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	2.98	4.82	3.68	9.24	.000
29	여성의 외모 중시 풍조를 부추기는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3.48	4.87	3.93	6.19	.000
33	남녀관계에서 여자는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한다.	4.82	5.99	5.27	7.62	.000
36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에 여자 전문가를 더 많이 출연시켜야 한다.	3.41	3.88	3.61	3.12	.002
39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3.32	4.47	3.76	7.21	.000
43	여자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특혜를 요구한다.	3.01	4.34	3.53	8.38	.000
49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	5.01	5.28	5.13	1.73	.083
51	광고에서 여성의 몸을 선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지 여성차별이 아니다.	3.52	4.70	4.00	6.82	.000
59	여자는 남자가 선택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5.04	5.21	5.12	1.08	.279
66	텔레비전에서 평등한 남녀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4.96	5.69	5.25	5.37	.000
68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3.89	5.02	4.33	6.37	.000
74	컴퓨터 통신에 성희롱이나 성 차별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12	5.56	5.31	3.28	.001
70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2.85	3.83	3.24	6.13	.000
78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남자는 사귀는 여자보다 확별이 좋아야 한다.	4.52	5.04	4.72	2.82	.005
소 계		4.60	5.48	4.94	13.60	.000
전 계		4.59	5.56	4.96	17.65	.000

의 성에 대한 만족과 교육, 사회문화의 부적 상관(각각 $r=-.192$, $r=-.235$, $p<.05$) 이외에는 아무런 상관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개인자존심과 평등의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3.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와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

(a)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 신뢰성과 남녀 차이

심리적 안녕척도	α	평균		t	유의도
		남	여		
집단지존심	.8546	4.91	4.94	-3.660	.714
개인자존심	.8602	4.65	4.44	1.923	.055
정서애착	.6382	5.07	4.82	2.338	.020
자신 성에 만족	.5170	3.74	3.44	3.540	.000

(b) 심리적 안녕감과 평등의식검사의 하위분야별 상관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	전체평등
집단지존심	.089	.085	.127*	.133*	.114*
개인자존심	-.029	-.021	-.006	-.001	-.016
정서애착	-.120*	-.123*	-.132*	-.096	-.130*
자신 성에 만족	-.253**	-.278**	-.261**	-.276**	-.294**

(c)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분야간 상관

	개인자존심	정서애착	자신에 만족
집단지존심	.445**	.236**	.100*
개인자존심		.278**	.211**
정서애착			.300**

* $p < .05$, ** $p < .01$

이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자존심은 일반적인 사회 집단을 떠오르게 한 것으로 평등의식과 관련하여서는 자신 성에 대한 만족이 보다 직접적인 상관을 보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특히 남성집단에 있어서 집단자존심이 높을수록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평등의식이 높은 것은 자신이 속한 일반적인 사회 집단에서 대해 만족할수록 관대해지고 여유로우며 남녀 차별도 적게 지각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에서 자신의 성에 정서적 애착이 강할수록 가정, 교육, 직

업, 그리고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낮은 평등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일반적인 집단자존심과 평등의식의 관련성이 소속된 성에 대한 평가와 평등의식과의 관련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평등의식을 쟁점 상 상위 25%와 하위 25%를 나누어 정서애착과 자기 성에의 만족을 본 결과 남성들은 정서애착과 자기 성에의 만족, 그리고 부적 감정의 경험 정도에 있어서 상위 25%보다 하위 25%가 더 높게 나왔다($t=2.51$, $p<.001$). 그러나 여성 응답자들에게서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고, 평등의식의 수준이 상위 25%와 하위 25% 안에서의 남녀 비교에서도 하위 25%에서만 정서애착과 자신의 성 만족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3$, $p<.001$). 이 결과도 주로 남성들 중 평등의식이 낮을수록 자신이 성에 더 정서 애착적이고 만족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예언 2 지지).

연령별 전공별 차이

평등의식 검사 결과에서의 연령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응답자들을 20세 이하와 21세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가 표 4(a)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문화

표 4. 평등의식 검사에서의 연령별, 전공별 차이

(a) 평등감사상 연령별 차이

분야	연령*		t	유의도
	20세 이하	21세 이상		
가정	5.19	4.81	3.99	.000
교육	4.95	4.70	2.68	.008
직업	5.02	4.77	2.81	.005
사회, 문화	4.98	4.81	1.83	.069
전체	5.03	4.77	3.14	.002

* 20세 이하(262명), 21세 이상(93명)

(b) 평등감사상 전공별 차이

분야	전공*		t	유의도
	자연, 공학	인문, 사회, 예술		
가정	4.98	5.23	2.93	.004
교육	4.80	4.99	2.45	.015
직업	4.84	5.09	3.07	.002
사회, 문화	4.84	5.07	3.04	.003
전체	4.87	5.10	3.17	.002

* 자연, 공학(202명) 인문, 사회, 예술(153명)

를 제외한 세 분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0세 이하가 21세 이상의 응답자들보다 더 평등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각 영역별로 보면 가정분야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직업분야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공학, 자연 등 자연계열과 인문, 사회, 예체능 등 인문계열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 표 4(b)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계보다 인문계에서 수학과 같은 응답자들이 더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직업분야에서 가장 차이를 벌였으나 교육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고정관념의 내용과 정도

남녀 응답자들에게 일상생활 중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례들을 주어진 보기에서 5개씩 고르게 하여 누가 비율이 50%에 이르는 내용들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이 유리한 사례로 남성 응답자들은 '임신 생리 등의 고통이 없다', '외박, 늦은 밤길 귀가시간이 자유롭다', '음주 흡연시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자취나 하숙이 용이하다'를 들었고, 여성 응답자들은 음주 흡연시의 자유 대신에 '진급과 승급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를 들었다. 여성이 유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남성들은 '군입대 면제, 각종책임이 적다', '힘든 일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된다', '레이디퍼스트로 우선 양보를 받을 수 있다', '미팅 데이트 비용을 적게 낸다'를 들었고 여성들도 같은 내용을 그 순위만 다르게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여성의 유리한 점에 대하여는 양성간에 일치가 있었으나 남성의 유리한 점에 있어서는

표 5. 남녀별 유리한 고정관념의 내용들

(a) 유리한 사례

평가자	평가 대상	
	남 성	여 성
남 성	① 임신, 생리 등의 생리적 고통이 없다.(17.3)*	① 군입대가 면제되고 각종 책임이 적다.(19.7)
	② 외박, 늦은 밤길, 귀가시간이 자유롭다.(16.4)	② 힘든 일,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된다.(14.3)
	③ 진급, 승급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12.1)	③ 레이디퍼스트, 우선 양보 받을 수 있다.(12.3)
	④ 자취나 하숙이 용이하다.(8.4)	④ 미팅, 데이트 비용을 적게 낸다.(10.9)
	누계(54.2)	누계(57.2)
여 성	① 임신, 생리 등의 생리적 고통이 없다.(16.7)	① 군입대가 면제되고 각종 책임이 적다.(19.3)
	② 외박, 늦은 밤길, 귀가시간이 자유롭다.(15.7)	② 힘든 일,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된다.(12.9)
	③ 음주 및 흡연 시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11.5)	③ 레이디퍼스트, 우선 양보 받을 수 있다.(12.3)
	④ 자취나 하숙이 용이하다.(11.0)	④ 미팅, 데이트 비용을 적게 낸다.(12.1)
	누계(55.0)	누계(56.6)

(b) 불리한 사례

평가자	평가 대상	
	남 성	여 성
남 성	① 군입대로 인해 장기간의 개인 발전이 힘들다.(18.2)*	① 생리 등의 생물학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16.8)
	② 각종 힘든 일에는 남성이 먼저 해야한다.(12.1)	② 요리, 청소, 육아 등의 일을 맡아야 한다.(11.7)
	③ 집안이나 사회에서 과도한 책임을 강요당한다.(10.6)	③ 외박, 귀가 시간이 제한적이다.(10.8)
	④ 가족 부양 등 각종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한다.(10.5)	④ 성폭력, 성희롱의 우려가 있다.(10.6)
	누계 (51.4)	누계 (59.0)
여 성	① 군입대, 장기적 개인 발전 곤란(18.1)	① 생리 등의 생물학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16.3)
	② 가족 부양 등 무거운 짐(13.9)	② 외박, 귀가 시간이 제한적이다.(14.3)
	③ 집안, 사회에서 과도한 책임(12.0)	③ 성폭력, 성희롱의 우려가 있다.(10.8)
	④ 각종 힘든 일 나성 먼저(9.8)	④ 채용, 업무 승진에 차별(11.3)
	누계 (53.8)	누계 (52.9)

* ()는 비율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예언 3 지지).

일상 생활 중에 겪게되는 남녀의 불리한 사례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불리한 사례에 대하여 남녀 모두 '균등대로 장기적 발전이 힘들다', '각종 힘든 일에 남성이 먼저 해야 한다', '집안이나 사회에서 과도한 책임을 강요당한다', '가족 부양 등 각종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를 그 순서만 다르게 하여 같은 내용을 고정관념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불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남성들은 '생리 등 불편한 점이 있다', '요리 육아 등을 맡아야 한다', '외박 귀가 시간이 제약된다', '성폭력, 성희로의 우려가 있다' '채용, 업무 승진에서 차별이 있다'를 들었고, 여성들은 요리 육아의 책임을 뉘네 가지만이 누가비율 50%에 들어갔다. 이 결과는 여성의 불리한 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생각의 정도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낮음을 보이는 것이다.

남녀가 각 문항별로 다른 패턴의 응답을 보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짝지워 남녀의 응답 결과를 카이 검증한 결과 남성의 유리한 사례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90.62$, $df=14$, $p<.001$). 또한 여성의 불리한 사례에 대한 남녀의 응답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X^2=55.01$, $df=15$, $p<.001$).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에 대하여 비교적 일치된 고정관념 즉, 첨예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일치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문제를 잘 의식하여 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러한 첨예도가 낮아 합의 정도가 낮다면 문제 해결에는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일단 첨예한 고정관념, 이 연구에서 제안안 대로 50%의 누가비율에 들어가는데 적은 수의 사례들이 필요시에는 양성간에 차이가 있음을 잘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오히려 더 평등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 평등의식을 각 영역별로 보면, 가정분야가 가장 높았고(5.09), 그 다음은 직업분야(4.95), 사회문화 분야(4.93), 교육분야(4.88)의 순으로 나왔다.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5.56)이 남성(4.59)보다 더 높은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는 모든 영역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특히 교육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사회문화 분야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김양희 등(2000)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에서는 일반인을 표집으로 한 것으로서 5점 척도 상에 평균 2.80이었고, 분야별로는 교육(2.91), 가정(2.88), 직업(2.80), 그리고 사회문화(2.58)로 나왔었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대학생들이었으므로 교육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지각했을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을 채는 하위 척도들인 집단자존심, 개인자존심, 정서애착, 그리고 자기예의 성예의 만족 중 정서애착과 자신의 성예의 만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집단자존심은 일반적인 집단을 지칭하므로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한 자신이 속한 성 범주에 대한 만족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만족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감을 보는 각 요인들 상호간에는 집단자존심과 개인자존심이 가장 밀접함을 보였고, 집단자존심과 자신에 대한 만족은 가장 낮게 나왔으나 각 요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평등의식의 네 영역과의 상관에서는 집단자존심과 직업, 사회문화는 정적상관관, 정서애착과 가정, 교육, 직업과는 부적상관관, 그리고 자신의 성예의 만족과는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남녀별로 따로 분석하면 남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 즉, 남성 응답자들은 집단자존심과 직업, 사회문화는 물론, 교육에서도 정적 상관관을 보였고, 정서애착과는 가정분야만 부적인 상관관, 그리고 자신의 성예의 만족은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와 부적으로 상관됨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성예에 대한 만족과 교육, 사회문화가 부적 상관관을 보일 뿐 그밖에는 아무런 상관관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개인자존심은 평등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집단에 있어서 자신의 성예 정서적 애착이 강할수록 가정,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평등의식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 집단자존심과 평등의식의 관계는 소속된 성에 대한 평가와 평등의식의 관계가 다름을 보이는 것이다.

평등의식 척도 상 상위 25%와 하위 25%를 나누어 정서애착과 자기 성예의 만족을 본 결과 남성들은 정서에

착과 자기 성애의 만족, 그리고 부적 감정의 경험정도에 있어서 상위 25%보다 하위 25%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들에게서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고, 평등의식의 수준이 상위 25%와 하위 25% 안에서의 남녀 비교에서도 하위 25%에서만 정서애착과 자신의 성 만족 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도 주로 남성들 중 평등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정서애착적이고 자신의 성애 만족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남성 응답자들 중 집단 자존심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은 것은 집단 자존심을 정적으로 지각하는 조건에서만 그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적인 성원들이 핵심적인 성원들보다 더 외집단 격하를 보인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이 성 정체성에 불안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심하고(Herek, 1987), 사회경제적 지위가 흑인의 그것과 유사한 백인들이 더 심한 인종차별을 보이며(Katz, Wackenhut, & Hass, 1986), 중동출신 유대인이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들보다 더 아랍인을 배척하는 결과(Peres, 1971)들이 그것이다.

평등의식 검사 결과에서의 연령별 차이를 본 결과에서는 사회문화를 제외한 세 분야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20세 이하가 21세 이상의 응답자들보다 더 평등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각 영역별로 보면 가정분야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직업분야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양희 등(2000)의 결과와 일치하며, 세대간의 차이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고정관념이 시간이 지나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공학, 자연 등 자연계열과 인문, 사회, 예체능 등 인문계열 간의 비교에서도 자연계보다 인문계에서 수학과 같은 응답자들이 더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직업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일수록 평등의식이 낮다고 보고한 김양희 등의 보고에서는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 연구의 결과처럼 여성의 진출이 차이가 있는 인문과 자연의 계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남녀 응답자들에게 일상생활 중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례들을 주어진 보기에서 5개씩 고르게 하여 누가 비율이 50%에 이르는 내용들을 고정관념적 성차의식으로 보았을 때 양성간에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유리한 사

례에 대한 응답에서 그리고 여성의 불리한 사례에 대한 남녀의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에 대하여 비교적 일치된 고정관념 즉, 첨예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일치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문제를 잘 인식하여 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러한 첨예도가 낮아 합의가 낮다면 문제 해결에는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일단 첨예한 고정관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대로 50%의 누가비율에 들어가는데 적은 수의 사례들이 필요시에는 양성간에 차이가 있음을 잘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오히려 더 평등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 별 성차의 고정관념과 평등의식, 그리고 심리적 건강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으나, 조사대상자들이 특정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로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또, 남녀의 고정관념의 내용과 정도를 보는 방법론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고정관념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례를 규명하였으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고정관념적인 사례를 주어진 보기에서 모두 5개씩 고르게 하여 남녀별 유리/불리별 50%에 이르는 고정관념의 수에서 차이를 얻지는 못하였다. 단지 그 내용을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각 고정관념의 개별 항목별로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고정관념의 누가 비율이 50% 이내에 들어오는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고정관념의 첨예도에 있어서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 또는 세대간 고정관념적 성차의식을 보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표집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고교생 집단이나 대학생 집단, 그리고 일반인 집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계층별, 성별, 전공별 고정관념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어진 보기 중에서 선정할 수를 제한하지 않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양희, 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3-44.
 김혜숙(1994). 한국자이존중감척도. 한국심리학회지 : 사

- 회, 8(1), 103-116.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 한국심리학회 1990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57-67.
- 손승영, 박숙자, 전방지, 조순경, 진수희, 황석만(1999). 여성의 일과 삶의 질.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터.
- 유가호(1994). 아동 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성역할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1), 109-124.
- 차경호(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호서대 논문집, 18, 575-595.
- 차재호(1994).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한국심리학회 94 춘계심포지움 논문집, 1-24.
- 한겨레신문(1999. 8. 11).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다.
- 홍기원(2000). 집단소속감, 평가방법 및 정보의 공개가 내외집단원의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4(2), 167-179.
- 홍기원(2001). 남녀의 성차의식의 내용에 관한 연구. 미 발표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 Guilford Press.
- Beere, C. A., King, D. W., & King, L. A. (1984).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equality between the sexes. *Sex Roles, 10*, 563-576.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ourhis, R. Y. (1994). Power, gender,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 Some minimal group experiments. In M. P. Zanna & J. M. Olson (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 The Ontario Symposium* (vol. 7, pp. 289-314). Hillsdale, NJ : Erlbaum.
- Branscombe, N. R. (1998). Thinking about one's gender group's privileges or disadvantages : Consequences for well-being in women and me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167-184.
- Branscombe, N. R., Slugoski, B., & Kappen, D. (1997b). Collective guilt : Measuring its components and its consequenc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ansas.
- Brown, R. (1986). *Social Psychology*. Glencoe, Ill. : Free Press.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y Bulletin, 86*, 307-324.
- Cash, T. F., & Henry, P. E. (1995). Women's body image : Th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in the U. S.A. *Sex Roles, 33*, 19-28.
- Crocker, J., & Luth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8.
-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Eagly, A. H. (1997). *Sex Different in Social Behavior :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 Erlbaum.
- Herek, G. M. (1987). Can functions be measured? A new perspective on the functional approach to attitud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85-303.
- Katz, I., Wackenhut, J., & Hass, R. G. (1986). Racial ambivalence, value duality, and behavior. In J. F. Dovidio & S. L. Gare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35-60). Orlando, FL : Academic Press.
- Kenrick, D. T., & Trost, M. R. (1987). A biosocial theory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 In K. Kelly (Ed.), *Females, males, and sexuality*.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cCaughey, C., & Stitt, C. L. (1978). An individual and quantitative measure of stereoty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29-940.
- Oliver, M. B., & Hyde, J. S. (1993). Gender differences in sexuality :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29-51.
- Peres, Y. (1971). Ethnic relations in Isra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6*, 1021-1047.
- Spears, R., & Manstead, A. S. R. (1989). The social

- context of stereotyping and differenti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 101-121.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the attitudes toward the rights and rol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JSAS :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1-67.
- Stroh, L. K., Brett, J. M., & Reilly, A. H. (1992). All the right stuff : A comparison of female and male managers' career progres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251-260.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 (1995). Sexism and racism :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99-214.
- Tajfel, H. (1978).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7-24). Chicago. IL : Nelson-Hall.
- Taylor, D. M., & Moghaddam, F. M. (1994).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 internation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2nd ed.). Westport, CT : Praeger.
- Tougas, F., Brown, R., Beaton, A. M., & Joly, S. (1995). Neosexism : Plus ca change, plus c'est parei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842-850.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 Blackwell.
- Williams, J. E., & Best, D. L. (1990). *Sex & Psyche : Gender & Self Viewed Cross-culturally*. Newbury Park, CA : Sage.
- Wooley, S., & Wooley, O. (1983). Should obesity be treated at all? *Psychiatric Annals*, 13(11), 884-885, 888.